

폐경 후기 중년여성의 신체상, 우울 및 성기능과의 관계

김정희*·배경의*·문현숙*·강현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45세 이상 여성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에는 전체 여성 인구의 23%를 차지 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179만명으로 45.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2) 폐경 후기 여성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성기능이란 성적욕구 및 흥분에서 시작되어 성적 자극이 지속되면 절정에 도달하고 해소기에 신체가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연속적인 반응으로 흥분기, 흥분고조기, 절정기, 해소기로 구분되는 생리적 과정이다(Rosen et al., 2000). 여성의 성기능은 질분비, 통증과 같은 신체적 반응과 성적 만족감을 포함하는데 폐경 후 여성은 질분비가 감소하게 되고, 성교시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게 되며 성적 흥분과 절정감 도달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Min, 2001). 그러나 여성은 남성과 달리 폐경 이후에도 성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므로 만족스런 성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Jo et al., 2002)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신체상, 우울, 자존감, 파트너와의 관계, 불안, 의사소통, 성적개념,

성적 무지,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포함된다(Berman, Berman, & Goldstein, 1999). 폐경과 함께 여성은 신체 변화를 겪게 되는데 특히,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지방이 체간으로 축적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며(Voda, Christy, & Morgan, 1991), 머리가 희어지기 시작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 즉,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를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Dikelamann & Galloway, 1975). 이러한 폐경기 이후에 두드러지는 신체 외형적 변화는 성적 욕구의 감소를 유발하게 된다(Voda et al., 1991).

중년기 여성에게 우울증이 자주 발생하며, 이 시기에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와 신체적 질병은 우울과 관련이 있다(Shin, 1999). 신체변화로 인해 이전에 받아들였던 신체상과 현재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정서적 긴장이 높아지고 그와 함께 우울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Kim, 2002). 또한 우울증이 있는 경우 성기능 장애가 자주 보고되고 있음을(Benbow & Jagus, 2002) 고려할 때 성기능과 우울간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여성 성기능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이상의 변수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우울과 신체상에 관한 연구도 여성의 성기능과의 관련성을 배제하여 왔다.

따라서 폐경 후기 중년 여성의 신체상, 우울, 성기능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교신저자 김정희 E-mail: jhee90@hanmail.net)

** 춘천 성심병원 책임간호사

투고일 2005년 1월 18일 심사위원회일 2005년 1월 18일 심사완료일 2005년 4월 27일

정도를 살펴 보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는 중년 여성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폐경후기 중년 여성의 신체상, 우울, 성기능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폐경 후기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 성관련 특성을 확인한다.
- 2) 대상자의 신체상, 우울, 성기능 정도를 확인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상, 우울, 성기능 정도를 확인한다.
- 4) 대상자의 신체상, 우울, 성기능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3. 용어 정의

- 1) 여성 성기능 : 성적 자극에 대한 여성의 성반응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요소를 포함하며 (Rosen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Rosen 등 (2000)이 개발하고 Yoo(2003)가 번역한 여성 성기능지수(FSFI: Female Sexual Function Index)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2) 신체상 : 신체상이란 개인이 자신의 신체외모, 신체기능, 신체상태에 대해 가지는 지각이나 태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Jang(1982)이 신체상 의미척도를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3) 우울 : 우울이란 정상적인 기분변화에서 병적인 상태에 이르는 근심, 침울감, 무기력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상태(Battle, 1978)로 본 연구에서는 Radloff(1977)가 개발하고 Chon과 Rhee(1992)가 번안한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로 측정된 값을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폐경기 후기 중년 여성의 신체상, 우울, 성기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45세에서 65세의 여성 중 자연폐경이 된지 1년 이상 된 여성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신경이나 척추손상, 자궁적출술이나 대장수술의 수술 과거력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과 성관련 특성 12문항, 우울 20문항, 신체상 15문항, 성기능 19문항으로 총 6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신체상 측정 도구

신체상의미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Jang(1979)이 수정한 신체상 도구를 사용하였다. “내자신의 신체는?” 개념으로 의미구조를 파악하여, 15쌍의 상반된 어휘군을 선택, Likert type의 5점 척도로 최저 15점, 최고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상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3$ 으로 나타났다.

2) 우울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우울 측정 도구인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는 Radloff (1977)가 개발한 자가 보고형으로 지난 일주일동안 우울 증상의 빈도를 기록하는 20문항의 질문지로 되어있다. 긍정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문항은 역산하였고 각 문항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우울을 경험했는지에 따라 측정범위는 총 0-6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n과 Rhee(199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로 나타났다.

3) 성기능 측정 도구

성기능 측정도구로 Rosen 등(2000)이 개발한 FSFI(Female Sexual Function Index)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성욕구 영역 2문항, 성흥분 영역 4문항, 질분비 영역 4문항, 절정감 영역 3문항, 만족감 영역 3

문항, 성통증 영역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9문항으로 6점 등간 척도이다. 성기능에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으며 Rosen 등(2000)의 제시에 따라 성욕구 문항은 0.6점, 성흥분 영역 0.3점, 질분비 영역은 0.3점, 절정감 영역은 0.4점, 만족감 영역은 0.4점, 성통증 영역은 0.4점을 각 영역의 합산 점수에 곱하여 전체 6개의 영역점수를 합산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성기능이 감소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Rosen 등(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2$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6$ 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4년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부산, 춘천에 소재한 보건소와 문화센터를 방문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폐경후기 중년 여성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응답을 원치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었다. 수집된 총 117부의 설문지 중 내용이 불완전한 설문지 21부를 제외한 총 96부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0을 이용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신체상, 우울, 성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상, 우울, 성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ANOVA, Scheffe 검증을 하였다.
- 4) 대상자의 신체상, 우울, 성기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5.6세로 45세에서 55세는 46.9%(45명), 56세-65세는 53.1%(51명)으로 나타났다. 90.6%(87명)가 기혼중년 여성이었으며 9.4%(9명)는 사별이나 이혼상태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다. 대상자의 79.2%(76명)는 전업 주부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대상자의 정규 교육을 받은 기간이 6년이하는 20.8%(20명), 7-9년은 19.8%(19명), 10-12년이 45.8%(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13.5%(13명)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경우가 20.8%(20명), 기독교는 18.8%(18명), 불교는 35.4%(34명)로 가장 많았으며, 천주교 22.9%(22명), 기타가 2.1%(2명)로 조사되었다. 수입은 한달에 100만원 이하가 22.9%(22명), 101-200만원이 32.3%(31명), 201-300만원이 20.8%(20명),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24%(23명)였다.

2. 대상자의 성 관련 특성

대상자의 성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평균 79.8개월이 지난 상태로 12개월에서 36개월 이하가 28.1%(27명), 37개월에서 72개월은 31.3%(30명), 72개월이 넘는 경우가 40.6%(39명)로 가장 많았다.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55.2%(53명)였으며 만성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4.8%(43명)으로 조사되었다. 성 상대자의 나이는 평균 59.5세로 40-55세인 경우가 30.2%(29명), 56-65세는 50.0%(48명), 66세 이상은 16.7%(16명)였으며 응답이 없는 경우가 3.1%(3명)였다. 성 상대자가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0.6%(40.6명)였으며 59.4%(56명)은 만성질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가 느끼기에 성상대자에게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되는 경우가 71.9%(69명),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4%(23명), 4.2%(4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성교 횟수는 매달 1회가 30.2%(29명)로 가장 많았으며 한달에 2-3회가 22.9%(22명), 일주일에 일회 이상이 18.8%(18명), 성교가 없는 경우도 25%(24명)였으며 3.1%(3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3. 대상자의 신체상, 우울, 성기능 정도

대상자의 신체상, 우울, 성기능 정도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신체상은 평균 52.40점으로 중간점수인 45점 보다 높으며 우울은 평균 18.09점으로 우울기준 점수인 16점보다 높았다. 또한 우울점수가 16점 이상으로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는 5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기능은 18.02점으로 가능한 점수 1.2에서 36점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었다.

<Table 1> The level of body image, depression, and sexual function (N=96)

Items	Mean±SD	Observed range	Possible range
Body image	52.40 ± 9.64	27-71	15-75
Depression	18.09 ± 9.65	0-44	0-60
Sexual function	18.02 ± 7.47	1.20-31.40	1.2-36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우울, 성기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우울, 성기능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연령과 결혼상태에 따른 신체상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연령, 수입정도,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우울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기능에서는 45세에서 55세 대상자가 56세 이상의 대상자에 비해 성기능 점수가 높았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대상자보

다 성기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 성기능에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 분석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5. 성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상, 우울, 성기능

대상자의 성관련 특성에 따른 신체상, 우울, 성기능은 <Table 3>과 같다.

만성질환이 있는 대상자가 만성질환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는 폐경후기 중년 여성이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성교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 분석 결과 성교가 없는 대상자가 1주일에 1회이상 성교를 하는 대상자에 비해 우울 점수가 더 높았다.

마지막 월경 이후의 기간에 따라 성기능에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폐경이 된지 6년이 넘는 대상자의 성기능이 1년에서 3년, 3년에서 6년이 된 대상자에 비해 성기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 성기능에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배우자가 66세 이상인 대상자가 배우자의 나이가 40-55세, 56-65세군 보다 성기능이 낮았다. 또한 배우자의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 대상자가 그렇지 않다고 평가한 대상자보다 성기능이 낮았다. 성교빈도에 따라서도

<Table 2> Body image, Depression, and Sexual function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96)

Characteristics	Category	Body image			Depression			Sexual function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Age (year)	45-55	52.18±10.06	.042	.839	18.75±10.47	.377	.541	20.42± 5.65	9.333	.003
	56-65	52.58± 9.35			17.52± 8.94			15.82± 8.27		
Marital status	Married	52.41± 9.52	.058	.954	18.02± 9.58	-.237	.813	18.51± 6.86	1.341	.219
	Widowed or divorced	52.22±11.35			18.87±11.08			12.97±11.48		
Education (years)	0-6	52.25±10.67	.054	.983	20.85±11.37	1.038	.380	14.92± 7.51	2.792	.045
	7-9	52.02± 8.61			18.47± 9.99			16.25± 7.96		
	10-12	52.32±10.26			16.35± 8.96			19.50± 6.71		
	≥13	53.38± 8.15			18.92± 8.33			21.17± 7.76		
Religion	None	49.50±10.93	1.528	.201	18.05± 9.98	1.182	.324	17.20± 7.89	.380	.822
	Protestant	55.82± 7.31			14.41± 8.17			18.50± 8.78		
	Buddhism	51.23± 9.62			20.35±10.72			17.25± 6.96		
	Catholic	53.50± 9.75			21.00± 0.00			19.56± 7.29		
	Others	60.00± 0.00			19.70± 0.00			19.70± 0.00		
Occupation	Not have	51.72± 8.63	-1.364	.176	18.89± 9.54	1.549	.125	17.31± 7.80	-2.027	.049
	Have	55.00±12.67			15.15± 9.75			20.50± 5.67		
Income/month (thousand won)	≤1000	52.45± 9.05	.635	.593	18.50± 8.01	1.035	.378	16.57± 7.09	.761	.519
	1001-2000	52.76± 9.86			18.79± 9.10			17.50± 7.77		
	2001-3000	52.65± 8.98			17.10±11.78			20.02± 5.17		
	>3000	51.42± 9.21			19.40± 9.37			18.28± 6.54		

<Table 3> Body image, depression, and sexual function by sexuality related characteristics (N=96)

Characteristics	Category	Body image			Depression			Sexual function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LMP(month)	12-36 a	52.80±10.62	.778	.462	20.42±10.10	2.140	.124		21.53± 5.23	9.938	.000	a>c
	37-72 b	58.86±10.43			15.30± 9.77				19.49± 7.14			b>c
	>72 c	51.00± 8.18			18.71± 8.94				14.13± 7.57			
Chronic disease	Have	51.10± 9.31	2.203	.029	19.50±15.61	-2.782	.006		17.76± 8.00	.351	.727	
	Not have	54.42±11.03			15.61± 8.38				18.31± 6.90			
Sexual partner's age (year)	40-55 a	52.80±10.62	.776	.462	20.42±10.10	2.140	.124		21.53± 5.23	9.938	.000	a>c
	56-65 b	53.86±10.63			15.30± 9.77				19.49± 7.14			b>c
	≥ 66 c	51.00± 8.28			18.71± 8.94				14.13± 7.57			
Partner's chronic disease	Have	51.98± 8.46	-.795	.428	18.56± 9.50	1.085	.279		16.12± 8.09	1.906	.060	
	Not have	53.18±11.24			16.94± 9.23				19.17± 6.88			
Perceived partner's sexual problem	Yes	51.91± 9.50	-.271	.787	18.00±10.13	-.093	.926		14.85± 7.22	-2.884	.005	
	No	52.55±10.01			18.22± 9.74				19.72± 6.72			
Sexual intercourse (frequency)	Monthly a	54.58±10.37	2.014	.118	18.86± 9.74	3.072	.032	c<d	20.16± 5.46	21.538	.000	a>d
	2-3/ monthb	52.61± 7.99			17.19± 8.23				20.78± 3.51			b>d
	1≥/week c	55.38± 9.40			13.11± 6.31				20.74± 6.73			c>d
	Not try d	48.54±10.13			21.95±11.84				10.06± 6.56			

LMP = Last Menstrual Period

성기능에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 분석 결과 최근 한 달 동안 성교시도가 없었던 집단이 성교가 있었던 다른 집단에 비해 성기능이 낮았다.

6. 대상자의 신체상, 우울, 성기능과의 관계

대상자의 신체상, 우울, 성기능과의 관계는 <Table 4>와 같으며 신체상이 높을수록 우울정도는 낮았으며 성기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과 성기능 점수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body image, depression, and sexual function (N=96)

	Depression	Sexual function
Body image	-.486(.000)	.231(.029)
Depression		-.204(.056)

IV. 논 의

본 연구에서 조사된 전체 대상자 96명의 평균 연령은 55.6세로 신체상은 가능한 점수 15-75점에서 평균 52.40점으로 신체상 점수는 보통 수준이나, 중간 점수보다 높아 비교적 긍정적인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경이 된지 1년 이상이 된 폐경후기 중년여성은 폐경기에 나타난 자신의 신체 변화에 적응, 수용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년 여성들이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를 성형 수술을 통해 되돌리려고 하여 수술이 늘어나고 있으며(Hankook Il bo, 2004) 성형수술 후에 신체상이 높아짐을 고려할 때(Shin, 1993)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용 성형도 신체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대상자의 우울정도는 평균 18.09점으로 경중의 우울을 보였는데,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Park(2002)의 14.94점보다 우울 점수가 높아 폐경 후기 여성의 우울이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으며 폐경시기에 따른 우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기능 점수는 평균 18.02점이었으며 이는 미국의 건강한 여성(평균 연령 39.7세)을 대상으로 한 연구(Rosen et al., 2000)에서의 30.5점 보다 낮았고, 성기능 장애 여성(평균 연령 40.5세)의 평균 19.2점(Rosen et al., 2000)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한국 중년 여성의 74%가 성생활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이중 30.4%만이 성생활에 만족해 함(Kim, 2000)을 고려할 때 한국의 폐경후기 중년여성의 성기능 점수가 대체로 낮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화적 측면에서는 한국에서 여성의 성문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고(Jo et al., 2002) 있어 여성 개인도 성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여성의 성기능의 사정에 민감한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질환이 있는 대상자가 만성질환이 없는 여성에 비

해 더 우울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는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더 우울하다는 Miller, Cambell, Farran, Kauffman과 Davis(1995)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신체적 질병이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체 건강은 신체상과 관련이 있는데 질병으로 인해 신체상의 변화가 나타나며 특히 계속적인 증상이 수반되는 질병일 경우 신체의 특별한 부분에 관심을 갖게 하여 신체상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Anchony, 1968). 본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신체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Lee(2001)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 수록, 수입이 많을 수록 신체상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폐경시기별, 호르몬 대체요법 유무 등을 고려한 신체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교가 없는 대상자가 1주일에 1회 이상 성교하는 대상자에 비해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나 성생활을 안하는 사람이 우울하다는 Benbow와 Jagus(200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성행위시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의욕저하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넣어 줄 수 있으므로(Chosun Il-bo, 2004) 규칙적이고 활발한 성생활이 폐경후기 우울을 예방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울과 성기능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기능과 우울과의 관련성에 관한 반복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 폐경을 경험한 기간, 배우자 나이, 배우자의 성적문제 유무 및 성교 횟수에 따라 성기능에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대졸이상 여성의 성기능이 가장 높았으며 고졸, 중졸, 초졸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상호 애무 빈도와 성행위를 즐기는 성향이 높았다는(Seo, 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성지식이 많으며 이는 부부간 성관련 의사소통과 성적 자기주장을 높이게 되므로(Lee & Moon, 2000) 성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지식과 성 정보의 제공이 여성의 성기능을 높일 수 있는 중재가 될 것이며 중년 여성에게 폐경에 따른 신체, 심리적 변화와 그로 인한 성기능 변화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간호사의 성상담은 그리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Payne(1976)은 간호사의 성관련 지식이 많을수록 성상담시 편안하고 유능하게 대상자를 대하게 되어 상담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게 된다고 하였다. 간호사의 성건강

과 관련된 간호지식 또한 정보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간호사를 위한 성관련 지식 개발 프로그램 개발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적 측면에서 직업이 있는 군이 직업이 없는 군에 비해 성기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여성의 성생활 만족도가 높았다(Seo, 2002)의 연구 결과는 일치하여 사회생활이 성 정보의 획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Yoo(2003)의 연구에서는 직업 유무가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직종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연령이 56-65세군이 45-55세군 보다 성기능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폐경 후에 성적 사고나 성적 환상의 빈도가 감소하고, 여성호르몬(estrogen) 분비기능이 소실되면서 성교통이 발생하는 것(Park, 1999)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교 횟수에 있어서 본 연구결과 한달간 성교의 시도가 없었던 대상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성기능이 낮았다. 성교빈도가 성기능을 나타내는 예측요인으로 분류되는 것을(Yoo, 2003; Seo, 2002) 고려할 때 임상에서 성교가 없는 대상자의 성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성상대자의 연령과 대상자가 느끼는 성상대자의 성기능 문제가 여성의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의 연령이 66세 이상인 군이 다른 군에 비해 여성 성기능 점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화와 함께 남성은 쉽게 성적인 흥미를 잃게 되며 발기부전과 같은 남성의 성관련 문제 또한 여성의 성욕감퇴를 가져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Jo & Kim, 1999) 있음을 고려할 때 여성의 성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상대자와 관련된 요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기능 문제를 호소하는 여성의 간호 중재시에 배우자와 서로의 성적흥미나 성적불만에 대해 대화를 함으로써 기대나 문제, 불만을 해결해 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대상자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록 여성의 성욕, 성흥분, 질분비, 질정감, 만족감, 성통증 등에 여성 성반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여성의 체형은 여성의 성적 흥분에 영향을 주며(Kim, 1988) 중년기의 체형변화는 성욕구를 감소시킨다는 보고(Deeks, 2002)를 고려할 때 여성의 신체상과 성기능은 매우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상담시 대상자 자신의 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폐경후기 중년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Kim, 2002)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대상자의 신체상은 긍정적인 편임에도 우울이 경증인 것으로 나타난 점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울을 초래한다는 Deeks(2002)의 보고와 일치하지 않았다. 장루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Kim, 2002)에서 신체상은 우울에 대해 39.9%의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대상자의 신체상이 비교적 긍정적임을 고려할 때 추후 중년 여성의 신체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체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위 결과를 토대로 간호사는 폐경 후기 중년 여성이 신체적인 불편감을 극복하고 폐경이 새로운 시작임을 자각하고 심리적 문제를 극복해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폐경으로 인해 성생활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다양한 측면의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폐경 후기 중년여성의 신체상, 우울, 성기능 정도를 살펴보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밝혀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의 성기능에 대한 간호학적 관심을 높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는 여성 성기능 문제의 간호중재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이는 중년 여성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폐경 후기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폐경후기 중년 여성의 신체상, 우울, 성기능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004년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부산, 춘천에 소재한 보건소, 문화센터를 방문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폐경후기 중년 여성 중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유의 수준은 .05를 기준으로 SPSS/WIN 11.0을 이용하였고,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사후분석으로 Scheff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체상은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며 경증도의 우울이 있었으며 성기능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신체상과 우울점수가 더 낮았으며 성교빈도에 따라 우울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직업유무, 교육수준에 따라 성기능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폐경기간, 배우자의 나이, 배우자의 성기능에 문제 유무, 성교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교 빈도에 따라 우울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우울은 신체상과 역상관관계를 보였고, 성기능은 신체상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폐경 후기 중년여성의 성기능에 대한 상담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인식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폐경기 시기에 발생하는 여성 성기능 변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간호사를 위한 성관련 지식 개발 프로그램 개발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상담시 대상자의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우울이 있는 폐경후기 중년 여성에게는 신체 변화를 제대로 인식시키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여성 성기능과 관련된 간호지식의 개발을 위해서는 여성 성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폐경 후기 여성으로 자연 폐경되었으며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대상으로 제한을 하였을 제한하였으나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는 여성이나 자궁적출술을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nthony, E. J. (1968). The child's discovery of his body. *Phys Ther*, 48(10), 1112-1114.
- Battle, J. (1978).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 Rep*, 42, 745-746.
- Benbow, S. M., & Jagus, C. E. (2002). Sexuality in older women with mental health problems. *Sex Relat Ther*, 17(3), 262-270.
- Berman, J. R., Berman, I., & Goldstein, I. (1999). Female sexual dysfunction: incidence, physiology, evaluation and treatment options. *Urology*, 54, 385-391.
- Chon, K. K., & Rhee, M. K. (1992).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J Clin Psychol*, 11(1), 65-76.
- Deeks, A. (2002). Sexual desire: Menopause and its psychological impact. *Aust Fam*

- Physicia*, 31(5), 433-439.
- Dikelamann, N., & Galloway, K. (1975). The middle years, a time change. *American J Nurs*, 75(6), 994-1005.
- Jang, H. S. (1982). A study of the influence of illness on body image and self concept specifically in children with asthma. *Korean Acad Nurs*, 12(2), 80-90.
- Jo, H. H., Jung, I. C., Kim, H. Y., Kwon, J. Y., Lee, Y. J., Kim, H. Y., Kim, J. H., & Kim, J. H. (2002). Evaluation of sexual function and problems in Korean women. *Korean J Andrology*, 45(12), 2158-2166.
- Jo, I. H., & Kim, C. Y. (1999). Female sexual dysfunction. *Korean J Andrology*, 17(2), 77-83.
- Kim, J. H. (2002). *Relationship among the body image,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patients with colostomy*. Unpublished Ma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H. S. (2000). *A study on the lifestyle and health status of middle aged women*. Unpublished Ma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W. H. (1988). *Mind and body obsterics*. Seoul : Korea Society of Obsterics and Gynecology.
- Lee, I. S., & Moon, J. S. (2000). Knowledge of sex, attitude toward sex and sexual satisfaction in married women. *Korean J Public Health*, 14(2), 396-412.
- Lee, M. H. (2001). A study of hormone replacement therapy and body image in middle-aged woman,. *Korean J Woman Health*, 2(2), 197-218.
- Miller, B., Cambell, R. T., Farran, C. J., Kaufman, J. E., & Davis, C. (1995). Race, control, mastery and caregiver distress. *J Gerontol : Soc Sci*, 50, 374-382.
- Min, K. S. (2001). Female sexual dysfunction. *Korean J Andrology*, 19, 137-164.
- National Statistic Office (2000). *Annual report on the population*.
- Park, G. S. (1999). Experimental reserch of women's sexual function. *J Korean med Association*, 42(2), 152-157.
- Park, K. J. (2002).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life stress and self-esteem, depression of middle-aged women. *Korean J Community Nurs*, 13(2), 354-362.
- Payne, T. (1976). Sexuality for nurses: Correlations of knowlege, attitudes, and behavior. *Nurs Res*, 25, 286-292.
- Plastic surgery of aging. (2004, Dec 5). Hankoo Il bo, p. 10.
- Seo, S. Y. (2002). *The development of female sexual function questionnaire and identifi-cation of its related factors in family medicine out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Sexuality of elderly. (2004, Oct 6). Chosun Il bo, p. 12.
- Shin, K. R. (1999). A study on depression among mid-aged women. *J Korean Acad Adult Nurs*, 11(4), 858-868.
- Shin, Y. J. (1993). *Comparative study on body image and self-esteem among patients who had plastic surgery*. Unpublished Ma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 Psychol Meas*, 1, 385-401.
- Rosen, R., Brown, C., Heiman, J., Leiblum, S., Meston, C., Shabsigh, R., Ferguson, D., & D'agostino, R. Jr. (2000). The female sexual function Index(FSFI): a multidimen-sional self-report instrument for the assessment of female sexual function. *J Sex & Marital Ther*, 26, 191-208.
- Voda, A. M., Christy, N. S., & Morgan, J. M.

(1991). Body composition changes in menopausal women. *Women Ther, 11*(2), 71-96.

Yoo, H. S. (2003). *Predictors of female sexual dysfuncti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Abstract -

The relationships among Body Image, Depression and Sexual function in Postmenopausal Women

*Kim, Jung-Hee**, *Bae, Kyung-Eui**
*Moon, Hyun-Sook**, *Kang, Hyun-Im***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body image, depression and sexual function in Korean

postmenopausal women. **Methods:** Subjects were 96 postmenopausal women who have lived in Korea. Data was collected using Semantic Differential scale, CES-D, and FSFI. **Results:** The level of body image was positive, depression was mild, and sexual function was moderate.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sexual function. The subjects who had more positive body image experienced higher sexual function and less depressed mood. **Conclusion:** These findings showed the need for a knowledge development program for nurses regarding women's sexual function. Also, nurses must do counseling with sexual partner's and consider patients' body image when counseling those who complain of sexual dysfunction

Key words : Postmenopausal period, Woman, Body image, Depression, Sexual function

*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 Chunchon Sacred Heart Hospital